

“전남대 이끌 책임자는 나” 선거 열기 후끈

총장선거 D-14...공정 인사 등 내걸며 표심잡기

정성창·윤성석·허민·이병택·정병석 교수 5파전

전남대 20대 총장선거를 2주일 앞두고 후보들간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인구 절벽’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대 위기 상황과 재정 지원을 내세운 정부의 압박, 대학 자율·정체성 회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때보다 지역사회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

전남대 총장 후보자는 기호순으로 정성창(59·경영학부), 윤성석(59·정치외교학과), 허민(55·지구환경과학부), 이병택(59·신소재공학부), 정병석(58·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으로 전남대에서 모두 내로라하는 교수들이다.

정성창 교수는 경영전문대학원장과 융합인재교육원장을 지냈다. 윤 교수는 이미 한국정치학회 부회장과 사회대학장을 거쳤다. 허 교수는 자연과학대학장을 지내고 대한지질학회장을 맡고 있다. 이 교수는 공대 학장과 대학원장을 지냈다. 정병석 교수는 법대학장과 융합인재교육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3일에 이어 17~18일 두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20일 교수(166명)·직원(19명)·조교(3명)·학생(3명) 등 191명(59·신소재공학부), 정병석(58·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으로 전남대에서 모두 내로라하는 교수들이다.



정성창 윤성석 허민 이병택 정병석

총장임용후보자 2명이 최종 선출된다. 대학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로 총장 직·간선제 논란 등으로 인한 대학의 자율성 확보, 입학정원 감소로 인한 재정대책, 추락하는 대학 위상 회복 등을 꼽고 있다. 그만큼 후보자들의 정책 구상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후보자들은 또 공정한 인사원칙 확립, 인사·보직 개입 최소화 등을 앞다퉀 약속하면서 2차 현장평가에 나설 3명의 후보

가 되기 위한 구성원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학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우선, 1차 정책평가단에 참여할 비율을 감안하면 교수진이 많은 의대·공대 교수의 표심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역대 선거에서 의대·공대 출신 후보가 1위를 하지 못했던 사례 등을 감안하면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의회 “교육청, 국비 집착하다 누리예산 지원금 놓쳐”

시정 질문...오락가락 행정·허술한 재정 계획 질타

광주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오락가락 행정과 함께 중기 재정계획의 허술하고 아마추어적인 재정관리가 시의회에서 강한 질타를 받았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 요구만 하다 막판에 광주시에 손을 벌리는 바람에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주시의회 예결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지만, 누리과정 부족분 303억원 중 175억원을 교육청 예비비로 확정해 증액하자 교육청이 이에 반발하는 등 불씨를 남겼다.

17일 광주시의회는 예결위위원회를 열고 광주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했다. 예결위에서는 시교육청의 누리과정 등 교육 현안 예산안과 시 교육청의 원칙없는 예산편성, 계획성 없는 재정운용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김민중(국민·광산4) 의원은 “중기재정계획에는 32억원인 예산항목이 92억원까지 늘어난 사례도 있는데 이것을 계획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며 “이런 추경안을 어떻게 신뢰하고 예산안을 승인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정실(국민·남구2) 의원은 “장학금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왜 난데없이 이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때우려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거였으면 진작 태도를 바꿔 다른 시도교육청처럼 중앙정부 지원금이라

도 받았더라면 시와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라도 줄었을 것 아니냐”며 “교육감의 오락가락 행정 때문에 명분과 실리 모두 놓쳤다”고 지적했다.

황홍규 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원칙을 버린 것은 아니며 누리과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러 면을 살펴 예산 편성을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날 예결위에서는 시교육청이 모 사립유치원 생활기록부 조작을 해명하기

위해 수도권 일부 대학에 보낸 공문이 오히려 지역 수험생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생활기록부 조작 사례가 10여명에 불과한데도 시교육청이 이 학교 전체의 상황인 것처럼 설명해 해당 학교는 물론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입시에서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 의원은 “이 학교 교장과 교사의 잘못된 행동으로 생기가 조작된 학생들은 10여명 인데도, 시 교육청은 전체 학생이 해당되는 것처럼 서한문을 작성해 각 대학에 협조 서한문을 보냈다”면서 “이 때

문에 이 학교 3학년 385명 전체가 이번 입시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 공문 때문에 억울한 피해 학생들이 나타날 것이란 얘기가 돌아 학생들끼리 왕따 현상까지 생기는 등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교육청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재성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협조 서한문에서 생기를 조작한 학교의 일탈로 언급한 것은 세심하지 못한 처사였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최권일기자 cki@



추위 녹일 '사랑의 이불' 17일 광주시 북구 운암1동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주민센터 앞에서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에 전달할 이불을 차에 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1, 해질 17:54, 달출몰 19:47, 달몰림 08:40

깊어가는 가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지역	날씨	기온(°C)
광주	맑음	14/24
목포	맑음	15/22
여수	맑음	17/23
나주	맑음	12/24
완도	맑음	15/23
구례	맑음	13/25
강진	맑음	13/24
해남	맑음	12/23
장성	맑음	12/23
보성	맑음	13/24
순천	맑음	16/25
영광	맑음	13/23
진도	맑음	15/23
전주	맑음	15/23
군산	맑음	13/22
남원	맑음	11/23
축산도	맑음	16/19

◇바다 날씨

항목	오전	오후
풍향	북~북동	북~북동
파고(m)	0.5~1.0	0.5~1.0
시해	맑음	맑음
남부	맑음	맑음
남해	맑음	맑음
서부	맑음	맑음

◇물때

항목	간조	만조
목포	08:31	03:19
	20:59	15:52
여수	03:57	10:26
	16:23	22:38

◇주간 날씨

날짜	날씨	기온(°C)
14/25	맑음	12/25
15/22	맑음	15/22
16/21	맑음	14/20
17/21	맑음	11/20
18/21	맑음	11/21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자외선: 보통
- 미세먼지: 보통

수완~송암 급행버스 22일부터 운행

대중교통 사각지대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 수완지구와 운남지구를 거쳐 시내 방향을 오가는 급행버스 노선이 신설됐다.

광주시는 22일부터 수완지구에서 운남지구를 거쳐 광천터미널, 조선대, 남광주역, 송암공단까지 연결하는 급행버스 노선을 22일부터 운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급행버스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많은 인구가 입주한 수완지구와 효천지구 등 신도시에서 시내 중심지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과 주요 대학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애초 상반기 중에 운행할 계획이었으나, 노선 미확정 등으로 8월말 등 이후 2차례 늦춰졌다.

노동자 권리 교육 ‘노동 야학’ 운영

광주시 노동센터 다음달 1일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광주역 철차 건물 3층 무등산실에서 진행한다.

근로계약서 작성·임금계산·채불임금으로 인한 진정서 작성·산재신청서 작성 과정 등에서 노동자가 알아야 할 노동권리 침해 시 대처방법을 교육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2만원으로 노동센터는 우선 80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TAEYOUNG 21 HOSPITAL

태영21 병원

인공신장센터

오픈 9월 1일

홈페이지 | www.ty21-endo.com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신장실 | 직통
070-4165-7573

광주신세계백화점 건너편(국민은행 2F)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암동 111-1

유스퀘어 터미널, 신세계 백화점, 태영21병원, 백운동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